



◆ 독일투자개발회사(DEG), 2001년중 승인실적 사상 최대 기록

독일투자개발회사(DEG)는 2001년중 승인실적이 전년 대비 14.1% 증가한 4억 1,200만 유로로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DEG 지분을 독일부흥금융금고(KfW)가 인수한 이후 DEG와 KfW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DEG는 1962년 9월 민간기업 육성을 통해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자 독일연방정부의 출자로 설립된 개발정책기관으로, 지분참여, 장기대출, 보증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형태별 지원실적을 보면, 대출이 3억

4,600만 유로(84%), 지분참여가 6,600만 유로(16%)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전체의 26%인 1억 800만 유로이며, 중남미 1억 4,800만 유로, 아프리카 9,100만 유로, 중·동구 6,500만 유로 규모이다. 부문별로는 금융업이 전체의 32%로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였으며, 제조업 43%, 인프라 14%, 농업 5%, 광업 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DEG는 금년중 2001년보다 9.2% 증가한 4억 5,000만 유로의 신규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사무소】